

# 韓国語 — 問題用紙

各問題に対する解答は別紙解答用紙の所定の解答欄に記入すること。

..... (平成 29 年度) .....

■問題 1. 次の文章を読んで、下の問いに答えなさい。

(13 点)

논을 캔버스로 삼아 그림을 그리는 「논 아트」는 1993년 아오모리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다. 농업의 즐거움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고안된 이 예술은 처음엔 간단한 그림과 문자를 그리는 정도였다. 그러나 경험을 쌓게 되면서 보다 복잡한 문자나 디자인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논 아트는 우선 ( 1 ) 가장 예쁘게 보이도록 원근법으로 도안을 처리한다. 즉, 전망대에서 가까운 곳은 작게 먼 곳은 크게 밑그림을 설계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 거리와 각도를 계산해서 눈에 막대를 세운 다음에 그 사이를 끈으로 이어 공간을 나눈다. 2000개나 되는 막대를 세우는 일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브랜드미와 두 종류의 고대미밖에 없었으나 빨강이나 오렌지, 초록 등의 색을 나타내는 벼를 개발함에 따라 요즘은 7색 10품종의 벼를 심고 있다.

논 아트의 벼는 모두 손으로 모내기를 한다. 이 마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모내기 체험 투어」로 다른 지역 사람들의 참가도 받아들이고 있다. 농촌의 초등학교생이나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시지역 사람들이나 외국인들과도 같이 작업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류가 생겨 많은 사람들이 농업이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가을걷이 때 체험투어도 마찬가지다.

이 마을에는 이제 해마다 20-30만명의 외지인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되었다. 이 행사가 성공한 후에 역시 논 아트를 실시하려는 농촌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각 농촌을 연결시키는 이벤트도 열리고 있다. 마을 만들기의 성공 사례로서 비행기를 타고 시찰단이 올 만큼 외국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요즘은 해외에서 논 아트를 시도하는 농촌도 생겼다고 한다. 언젠가는 외국에 가서 다양한 논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1-1 空欄 (1) に入る語句を選びなさい。解答はマークシートの  にマークすること。 (2 点)

- ① 바로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
- ② 햇빛이 쏟아질 때
- ③ 비스듬히 위에서 바라봤을 때
- ④ 모든 방향에서 봤을 때

1-2 内容と合っているものは○、間違っているものは×を選択しなさい。解答はそれぞれ、①は  に、②は  に、③は  に、④は  にマークすること。 (各 2 点×4=8 点)

- ① 인구 감소로 쇠락한 어느 농촌에서 시작한 논 아트는 이 마을에서만 볼 수 있다.
- ② 눈에 그림을 그리는 논 아트는 제작 과정이 비교적 쉬우므로 전국에 퍼져나갔다.
- ③ 논 아트는 품종개량을 거듭한 끝에 식량문제의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 ④ 논 아트는 농업이나 환경문제의 이해와 관심을 끌며 도시와 농촌의 교류의 장이 되어 있다.

1-3 次の選択肢のうち、この文章の内容をもっとも適切に表しているものを選びなさい。解答はマークシートの  にマークすること。 (3 点)

- ① 논 아트를 시작한 농촌의 노력과 그 의의
- ② 논 아트의 장단점과 앞으로의 과제
- ③ 벼의 품종개량과 식량문제의 해결책
- ④ 농촌의 과소화와 환경문제의 현황

# 韓国語一問題用紙 2

各問題に対する解答は別紙解答用紙の所定の解答欄に記入すること。

..... (平成 29 年度) .....

■問題 2. 以下の文は、韓国の風習に関する説明文である。次の文章を読んで、下の問いに答えなさい。  
(12 点)

동지는 1 년 중에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이다. 동지는 24 절기의 하나로 대설과 소한 사이에 있는데 음력으로는 11 월 중, 그리고 양력으로는 12 월 22 일 경이다. 반드시 음력 11 월에 동지가 오기 때문에 음력 11 월을 동짓달이라 부르기도 한다. (a) 이때는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로 우리 조상들은 동식물들의 생명력이 가장 약해진다고 믿었다. 한편 이날을 태양 운행의 출발점으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경사스러운 날로 생각하고 축제를 벌여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올리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이날을 ‘작은 설’이라 하여 설 ( 1 ) 작은 설의 대접을 받았다. 그 풍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해서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 2 ) 먹는데, 우선 팥을 고아 죽을 만들고 여기에 찹쌀로 단자를 만들어 넣어 끓인다. 단자는 새알만한 크기로 만들기 때문에 ‘새알심’이라고 한다.

(b) 팥죽의 붉은색은 귀신을 쫓고 액운을 없애는 기능이 있다고 믿어, 집안의 안방이나 부엌, 헛간 등 여러 곳에 놓아두기도 하고, 대문이나 벽에 뿌리기도 했다.

또 동짓날 날씨가 따뜻하면 다음 해에 질병이 만연하여 사람이 죽는다고 했으며,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했다.

2-1 空欄 ( 1 )、( 2 )に入る適当なものを1つ選びなさい。解答はそれぞれ、(1)は  に、(2)は  にマークすること。 (各 2×2=4 点)

- (1) ① 다음가는      ② 다음오는      ③ 다음간      ④ 다음온  
(2) ① 끓이고      ② 끓어      ③ 끓고      ④ 끓여

2-2 下線部(a)を日本語に訳した場合に最も適切なものを一つ選びなさい。解答はマークシートの  にマークすること。 (4 点)

- ① この頃は寒さが不安定なので、私たちの先祖は動植物の生命力が一番弱くなると信じた。  
② この頃は寒さがピークなので、私たちの先祖は動植物の生命力が一番弱くなると信じた。  
③ この頃は急に寒くなるので、歴代の王は動植物の生命力が一番弱くなると信じた。  
④ この頃は寒さが少し緩むので、歴代の王は動植物の生命力が一番弱くなると信じた。

2-3 下線部(b)を日本語に訳した場合に最も適切なものを一つ選びなさい。解答はマークシートの  にマークすること。 (4 点)

- ① 小豆粥の赤い色は鬼を追い払い、疫病を防ぐ機能があると信じて、家の居間や台所、物置など、色々な所に置いておいたり、門扉や壁に撒いたりもした。  
② 小豆粥の赤い色は鬼を追い払い、厄払いする機能があると信じて、家の居間や台所、戸のすき間など、色々な所に置いておいたり、門扉や壁に撒いたりもした。  
③ 小豆粥の赤い色は鬼を追い払い、厄払いする機能があると信じて、家の居間や台所、物置など、色々な所に置いておいたり、門扉や壁に撒いたりもした。  
④ 小豆粥の赤い色は鬼を追い払い、疫病を防ぐ機能があると信じて、家の居間や台所、戸のすき間など、色々な所に置いておいたり、門扉や壁に撒いたりもした。

# 韓国語 — 問題用紙 3

各問題に対する解答は別紙解答用紙の所定の解答欄に記入すること。

..... (平成 29 年度) .....

■問題 3. 下線部の韓国語を日本語に訳した場合に最も適切なものを一つ選びなさい。解答は、それぞれ 3-1 は  に、3-2 は  に、3-3 は  にマークすること。

(15 点)

3-1 ‘봄별은 며느리를 쫓이고, 가을별은 딸을 쫓인다’는 봄 자외선을 경고하는 속담이 있듯이 봄철 자외선 차단에 자칫 소홀했다가는 피부 트러블은 물론, 기미, 주근깨, 주름과 같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4 点)

- ① 春の紫外線の遮断を自ら怠っている肌のトラブルは、シミ、ソバカス、皺のような肌の老化を当然促すこととなります。
- ② 春の紫外線の遮断をえてして怠っている肌のトラブルは、シミ、ソバカス、皺のような肌の老化を当然促すこととなります。
- ③ 春の紫外線の遮断を下手に怠っては、肌のトラブルはもちろんのこと、シミ、ソバカス、皺のような肌の老化を促すこととなります。
- ④ 春の紫外線の遮断を自ら怠っては、肌のトラブルはもちろんのこと、シミ、ソバカス、皺のような肌の老化を促しかねません。

3-2 썰물 때가 되면 차진 갯벌이 드러나는데 여름엔 바지락, 겨울엔 굴이 지천이다. (4 点)

- ① 満ち潮のときになると干潟が濡れ始めるが、夏はアサリ、冬はカキが姿を現わす。
- ② 満ち潮のときになると干潟が粘土質に変わるが、夏はアサリ、冬はカキが溢れかえる。
- ③ 引き潮のときになると濡れた干潟が現れるが、夏はアサリ、冬はカキが姿を現わす。
- ④ 引き潮のときになると粘土質の干潟が現れるが、夏はアサリ、冬はカキが溢れかえる。

3-3 한국에서는 진달래나 개나리가 만발하는 따뜻한 봄이지만 이 고장에는 아직 턱도 없다. 3 월은 아직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명실상부한 겨울이다. 눈이 질척질척 녹았는가 하면 갑자기 한 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미친 듯 눈이 퍼붓기도 하는 등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된다. (7 点)

- ① 韓国では朝鮮ツツジやレンギョウが満開になる暖かい春だが、この地域ではまだほど遠い。3 月はまだ吹雪が吹き荒れていて、名前だけの春である。雪がちよろちよろ融け始めたかと思うと急に一寸先が見えないほど狂ったように雪が降り注ぐなど気まぐれな天候が続く。
- ② 韓国では朝鮮ツツジやレンギョウが満開になる暖かい春だが、この地域ではまだほど遠い。3 月はまだ吹雪が吹き荒ぶ名実共に冬である。雪がどろどろ融けたかと思うと急に一寸先が見えないほど狂ったように雪が降り注ぐなど気まぐれな天候が続く。
- ③ 韓国では朝鮮ツツジやレンギョウが一斉に芽を出す暖かい春だが、この地域ではまだほど遠い。3 月はまだ吹雪が吹き荒れていて、名前ばかりの春である。雪がちよろちよろ融け始めたかと思うと急に一寸先が見えないほど狂ったように雪が降り注ぐなど気まぐれな天候が続く。
- ④ 韓国では朝鮮ツツジやレンギョウが一斉に芽を出す暖かい春だが、この地域ではまだほど遠い。3 月はまだ吹雪が吹き荒ぶ名実共に冬である。雪がどろどろ融けたかと思うと急に一寸先が見えないほど狂ったように雪が降り注ぐなど気まぐれな天候が続く。

# 韓国語一問題用紙 4

各問題に対する解答は別紙解答用紙の所定の解答欄に記入すること。

..... (平成 29 年度) .....

■問題 4. 次の日本語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解答はすべてハングルで書くこと。解答は、解答用紙 A の問題 4 の解答欄に記入すること。 (30 点)

4-1 銀座は「銀ブラ」という言葉があるくらいですから、ウインドウショッピングにはもってこいですよ。そのほかにも見どころがたくさんあって、一日中いても飽きないと思います。 (8 点)

4-2 このはり薬は小さいコイン型で貼っても目立たない上に、ツボに刺激を与えて血行をよくしてくれて、肩こりや腰痛によく効くと評判です。 (8 点)

4-3 A: 韓国では、電車やバスの優先席をお年寄りや体の不自由な人に譲る光景は昔に比べて減ってき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が、日本ではどうですか。 (7 点)

B: よくわかりませんが私の印象では、日本でもお年寄りが前に立っていても知らないふりをする人がだんだん多くなっているように思いますね。せちがらい世の中ですね。 (7 点)

■問題 5. 次の語句についてそれぞれ韓国語で説明しなさい。解答は、解答用紙 A の問題 5 の解答欄に記入すること。 (各 6 点×5=30 点)

5-1 整理券

5-2 こたつ

5-3 免税制度

5-4 アメ横

5-5 幕府

〈韓国語〉 マークシート 解答

問題番号	解答
1	3
2	×
3	×
4	×
5	○
6	1
7	1
8	4
9	2
10	3
11	3
12	4
13	2

# 韓国語-A

## 解答用紙

氏名は受験票と同じ表記で記入してください。受験番号・氏名記入欄はすべてのページにあります。間違いや記入漏れのないよう提出前に再度ご確認ください。

解答例 ※あくまで「例」であり、正解が一つではない場合もあります。

.....(平成 29 年 度).....

問題 4 採点 /30

### ■問題 4.

- 4-1 긴자는 「 긴부라(긴자 산책)」란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쇼핑에는 안성맞춤이지요. 그밖에도 구경거리가 많아서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8 点)
- 4-2 이 붙이는 약은 작은 작은 동전 모양으로 붙여도 눈에 띄지 않는데다가 경락에 자극을 주어 혈행을 원활하게 하여 어깨 결림이나 요통에 효과가 있다고 평판이 좋습니다. (8 点)
- 4-3 A:한국에서는 전철이나 버스에 노약자석을 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광경이 예전에 비하면 줄어든 것 같은데 일본에서는 어때요? (7 点)  
B: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본에서도 노인이 앞에 서 있어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각박한 세상이 되었지요. (7 点)

문제 5 採点 /30

### ■問題 5.

- 5-1 전자제품 양판점이나 백화점에서 인기상품을 사러 영업 시간 전에 온 고객들에게 상품수에 맞게 선착순으로 배포하는 표. 또는 콘서트나 방송국의 시청자 공개 녹화 등에서 일찍 온 관객들에게 좌석수에 맞게 선착순으로 나누어 주는 표를 말한다. 이 표를 갖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품을 구입하거나 입장을 할 수 있다.  
또는 거리에 따라 차등 요금을 적용하는 버스에서 어디서 탔는지를 가리키는 번호가 기재된 표. (6 点)
- 5-2 난로가 달린 탁자. 탁자를 이불로 덮고 외부와 공기를 차단해서 이불 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 기구로 다다미방에서 하반신을 녹이는 데 주로 사용된다. 바닥을 파내서 만든 “호리고타쓰”나 요즘에는 의자에 앉은 채 쓸 수 있는 “탁자고타쓰” 등도 있다. (6 点)
- 5-3 관광객이나 해외에 사는 일본인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 소비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금이나 나중에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 세금을 빼고 5000 엔 이상 구입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여권, 상품, 레시트(영수증)등이 필요하여 구입한 상점에서 면세 절차를 밟은 후에 공항에서 신고하면 된다.  
2017년 10월부터는 소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일본산 주류 제조소에서 일본술을 구입할 경우 면세가 되는 제도가 시작되었다. (6 点)
- 5-4 아메요코 시장  
일본 도쿄 우에노에 위치한 시장이며, 가격을 흥정할 수 있는 도쿄에서 흔하지 않은 재래시장이다. 식품,의류, 보석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여기를 많이 찾는다. (6 点)
- 5-5 일본에서는 12 세기에서부터 19 세기까지 천황을 중심으로 한 '조정'과 쇼군을 중심으로 한 '막부'가 국정을 운영했다. 막부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92년부터 시작된 가마쿠라막부, 1338 년(1336 년설도 있음) 부터의 무로마치막부, 1603 년부터 시작한 도쿠가와막부이다. 각각 천황(조정)에서 "정이대장군(오랑캐를 정복하는 장군이라는 뜻)"이라는 지위를 부여받고 실질적으로 지방을 지배하는 무사를 다스림으로써 전국적인 통치를 실시했다. (6 点)

採点欄